

DCS

Daejeon Chungnam Sejong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입니다.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권역 내 대학·전문대학을 연계하고 지원하며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원격교육 생태계를 구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DCS Together>에서는 원격수업 혁신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최신 교수법 동향, 수업노하우, 정책연구 결과,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권역 내 **공동활용 가능한 강의녹화 스튜디오**를 충남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활용이 가능한 원격강의 콘텐츠**를 개발 및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외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동향¹⁾

채재은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대학교육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강대중 외, 2020). 과거 일반 대학에서 외면하던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 등이 대학교육 혁신의 새로운 기제로서 전면 부상하고 있다(교육부, 2020; 임철일, 2020).

이러한 상황은 고등교육의 모든 영역, 특히 '국제화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 봉쇄가 이루어지고 유학생 입국 자체가 제한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학 캠퍼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유학생 지원 서비스

들이 중단되고, 자국에서 '온라인'으로 해외 학위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팬데믹 이후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이 그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홍준현, 2020). 이에 본고에서 고등교육 국제화를 선도하는 호주와 영국이 최근에 각각 발표한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학생 유치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는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유학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향후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고등교육 분야 국제화 발전 방안(이기정 외, 2022)'을 위해 필자가 작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음

해외 사례

호주

오래전부터 교육 국제화를 ‘국가 간 교역’의 관점에서 접근해 온 호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고등교육 수출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김지하 외, 2021). 그 결과 2021년 기준 190여 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정도로 글로벌화된 고등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2021).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호주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 수가 70%까지 줄어들었다. 그리고 비대면 교육의 전면 도입, 국가 간의 관계 변화, 팬데믹 등과 같은 위기의 지속가능성은 호주 정부로 하여금 교육 국제화 전략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성을 느끼게 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2021년에 「호주 교육국제화 전략(Australian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21-2030)(Australian Government, 2021)」을 수립했다.

〈표 1〉에 제시된 교육 국제화 계획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국제화 추진의 다양화(Diversification)로, 호주 정부와 대학들은 팬데믹을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소수의 국가에 편중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학생 유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호주도 중국 출신의 유학생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고, 중국 정부가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유학생 수가 급감하고 대학 재정이 악

〈표 1〉 호주의 교육 국제화(2021-2030) 추진 방향 및 전략

추진 방향	추진 전략
다양화(Divers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구성 및 출신국 다양화 • 디지털화 및 해외 진출 기회에 착안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호주의 인력 수요 충족 (Meeting Australia's Skill N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한 국제화 교육 강화 • 연구 및 협력을 통한 질적 파트너십 촉진
학생 중심 정책 추진 (Students at the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과 호주 학생, 지역사회 간의 연계 강화 • 국가 간 이동을 통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계 강화 • 학생 경험 및 웰빙 촉진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Growth and Global Competi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성장을 위한 높은 수준의 질 관리 프레임워크 유지 • 글로벌 경쟁력 확보

출처: Australian Government(2021:3), Australian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21-2030



화되는 문제를 겪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호주 정부에서는 국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유학생 출신국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활성화된 교육의 디지털화 및 해외 진출 기회에 착안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 분교, 외국 대학과의 공동·복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위 '초국가적인 고등교육활동(Transnational Higher Education)'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 인력 수요 충족(Meeting Australia's Skill Needs)으로,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이 주요 인적자원으로서 호주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 인력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 호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호주 정부에서는 정규 학위과정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나노디그리 과정' 등과 같은 단기 과정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Work Integrated Learning)'을 통해서 유학생들에게 인턴십, 현장실습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유학생들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학생 중심 정책 추진(Students at the Centre)으로, 팬데믹을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위기 발생 시 외국인 학생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은 대학 캠퍼스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팬데믹을 통해 대학이 봉쇄될 경우 '지역사회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에서는 주 정부 및 지역 정부, 그리고 고등교육기관들과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호주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 전략은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Growth and Global Competitiveness)의 강화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존 정책으로는 앞으로 호주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측면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맞춰 고등교육기관들을 혁신하고, 고품질의 온라인 과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 국제화의 질 관리 관련 법령(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ESOS Act)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학생 감소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비자 발급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전략들이 효과를 발휘할 때, 팬데믹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고등교육 국제화 선도 국가로서의 호주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은 교육 국제화를 통해서 대외 관계의 활성화, 경제성장 도모,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등의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김지하 외, 2020). 이에 따라 교육부 등과 같이 특정 부처가 교육 국제화(International education) 정책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

라 관계부처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9년에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와 국제통상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DfIT), 기타 부처 공무원들, 다양한 전문가 그룹, 고등교육기관 관계자 등이 2030년까지 영국 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30% 이상(60만 명)으로 확대하는 「교육 국제화 전략(International Education Strategy)」을 수립했다.

그러나,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의 회복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기존 전략을 「교육 국제화 전략: 2021년 수정사항(International Education Strategy: 2021 update) (DfE & DfIT, 2021)」으로 수정했다.



〈표 2〉에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육국제화 우선 지역 및 국가 설정으로, 국제교육협력 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나이지리아’를 국제교육협력 우선 국가로 지정하고, 아울러 ‘브라질, 멕시코, 파키스탄, 유럽, 중국 및 홍콩’도 중요한 협력 국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교육 국제화 대상 국가들로부터 유학생 자원 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국가와 지역을 발굴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으로, 국제화 우선 지역 및 국가 외에도 유럽, 인도 태평양,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간 학생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영국 대학들이 유학생들을 다수 유치한 지역들과의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교육 국제화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이다.

셋째는 입학부터 취업까지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학 입학 원서 지원, 졸업 성과 및 취업, 학업 경험, 장학금 지원 등과 관련된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팬데믹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영국 대학에서 유학하는 과정

〈표 2〉 영국의 교육 국제화 전략(2021년 수정본)

핵심전략	주요 내용
교육 국제화 우선 지역 및 국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나이지리아, 브라질, 멕시코, 파키스탄, 유럽, 중국 및 홍콩 등을 교육 국제화 우선 지역으로 지정
지속가능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화 우선 지역 및 국가 외에도 유럽, 인도태평양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국가 간 학생교류를 활성화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입학부터 취업까지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입학 원서 제출, 졸업 성과 및 취업, 학업 경험, 장학금 지원 등과 관련된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제 구축
국제교사자격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양성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국제교사자격증(International Qualified Teacher Status) 도입
영국 전문인증기구 및 특수교육 모델의 수출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전문인증기구(UK Chartered Professional Bodies)와 특수교육기관(UK SEND: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의 해외 진출 지원

출처: DfE & DfIT(2021)

에서 겪는 고충이 명확히 드러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 간의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국제교사자격증(International Qualified Teacher Status)을 도입하여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으로 중국, 사하라 서부 및 이남 아프리카, 남동아시아 등에서 증대하는 영국 교사자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영국 교사자격 교육만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라, 영국 유학 수요의 잠재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 전문인증기구 및 특수교육 모델의 수출 기회 확대로, 국제통상부에서는 영국 전문인증기구(UK Chartered Professional Bodies)와 특수교육기관(UK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새로운 교육 국제화 수요에 착안하여 영국 고등교육기관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들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정부는 팬데믹 이후 변화된 글로벌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간 교역과 긴밀히 연계하여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략을 가지고 있다.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교육 국제화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와 영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유학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면서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수



정보완하고 있다. 세부 과제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변화한 글로벌 고등교육 환경하에서 기존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국의 다변화, 유학생 지원의 강화, 온라인을 접목한 새로운 고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노력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도 더 이상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또는 계획)’ 수립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계획들은 주기적으로 발표되었지만, 정작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청사진은 부재한 실정이다(김지하 외, 2021).

고등교육 국제화는 다수의 고등교육 정책이나 사업에서 강조되는 캐치프레이즈이지만, 정작 재정지원방안이 수반된 국제화 계획은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대처 방식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층 치열해질 고등교육 국제화를 향한 국가 간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 영국과 호주 사례 등을 참고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의 경험을 토대로 유학생 유치전략을 전
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생 지원 체제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받
는 영국과 호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유학생들이 급
격히 감소하면서, 학업 및 지역사회 적응, 취업 등의 면
에서 겪는 유학생들의 고충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
여 유학생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도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학
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그 과정
에서 얻은 학습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유학생 지원방
안을 수립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코로나19 경험을 반영
하여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국제화를 유학생 유치만이 아
니라 ‘국내 고등교육체제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관
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영
어권 국가’라는 강점 외에도, 글로벌화된 고등교육체
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학생들에 의해
서 선호되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고등교육 국제화를 비단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대학 간 공
동·복수학위제 운영, 국가 간 학생교류 활성화, 글로벌
학사 및 학생 지원체제 구축 등과 같이 국내 대학들의

글로벌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화된 고등교육체제가 구축
될 때,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성과의 양적 및 질적 개선
도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고등교육 글로벌화가 한층
강화되는 선순환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대중 외(2020). 코로나19, 한국교육의 잠을 깨우다. 서울: 지식공작소.
- 김지하·조옥경·서영인·문보은·송효준·김지은·채재은(202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분석 연구(IP2020-12).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20). POST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
- 이기정 외(2022). 고등교육 분야 국제화 발전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임철일(2020). 비대면 수업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와 혁신. 대학교육, 209: 36-41.
- 홍준현(2020).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해외 대학의 대응과 변화. 대학교육, 209: 24-31.
- Australian Government(2021). Australian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21-2030.
- DfE & DfIT(2021). International Education Strategy: 2021 updat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58990/International-Education-Strategy-2021-Update.pdf.



채재은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다. 이화여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에서 수학했다. 대학 졸업 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교육부에서 약 10년 간 근무했다. 2006년부터 교수,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평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 교육부 및 기재부 자문위원, 한국대학평가원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장학재단 비상임이사, 평생교육진흥협의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평생교육론』(공저, 2019), 『4차 산업혁명과 고등교육 개혁』(공저, 2018)이 있다. ‘특성화사업이 참여 대학들의 특성화 추진과정에 미친 영향’(공저, 2019)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